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4월 15일(주일) 제1192호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장애인과 친구 되기



사진은 사랑챔버 연주회.

오늘은 장애인의 날 ... 특순, 전시회, 사랑부 교사 모집 굿윌스토어와 함께하는 '기증 캠페인' 4월 22일까지 실시

오늘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눈높이와 발걸음을 맞추며 더불어 하나 되는 뜻 깊은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풍성한 행사가 이어진다. 오늘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배에서는 장애인 예배공동체가 다채로운 특순을 선보인다. 1부 예배 온사랑합창단, 2부 예배 사랑부 OMW(사랑부 부모들로 구성된 합창단), 3부 예배 사랑챔버, 4부 예배 서빙고 사랑부 교사들이 특순

을 한다.

장애인 작가들의 전시회도 열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커피숍과 이천만광장에서 장애인 작가들과 모자이크 플러스(청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중프로그램)가 만든 작품을 전시 및 판매한다. 디퓨저(방향제), 머리끈, 수세미 등을 판매한다.

양재 온누리교회 사랑부는 3부 예배에서 클라리넷 및 바이올린 연주와 율동찬양 특순을 한다. 부천은

1~4부 예배 사랑부 교사 간증, 2부 예배 사랑부 부모 간증, 3부 예배 사랑부 지체들과 교사 특순이 있다. 자선장도 열린다. 강동 온누리교회 1부 예배에서는 사랑부 지체들이 특순을 한다.

장애인 예배공동체를 섬길 교사모집 행사도 실시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본관 1층 로비와 이천만광장에 마련된 부스와 양재 온누리교회는 1층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신

청을 받는다.

사랑부 조태형 교사는 "섬기면 섬길수록 사랑부 아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는다"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장애인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랑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온누리교회와 굿윌스토어가 함께하는 기증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4월 22일까지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설치되는 굿윌스토어 수거함에 생활용품들을 가져다 놓으면 된다. 기부할 생활용품이 많은 경우에는 굿윌스토어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캠퍼스(부천,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 양지)는 생활용품을 자체적으로 모아서 굿윌스토어에 한꺼번에 전달할 예정이다. 기부 가능한 생활용품은 의류, 잡화, 도서, 가전제품 등 쓸 수 있는 물건이다.

한국 교회는 1989년 장애인의 날(4월 20일) 전후 주일을 '장애인의 날'로 선포하고 지켜오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문 의

장애인사역본부 02-3215-3268
굿윌스토어 02-6910-9191
www.miralgoodwill.org

'사랑하는 부모님께 행복을 선물합니다'

부모 초청 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참가자 모집

전도사역본부가 개최하는 2018 부모 초청 맞춤형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 '사랑하는 부모님께 행복을 선물합니다' 참가자를 4월 22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60세 이상 만지 않는 부모가 그 대상이다. 행복드림콘서트는 오는 5월 14일

에 개최된다. SNS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행복드림2018'을 검색한 다음 친구추가를 하면 등록신청, 집회안내, 공지알림, 1:1채팅 문의가 가능하다.

2013년부터 시작된 부모초청 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는 매년 300여

명의 부모들이 참석하고 있다. 지난해 행복드림콘서트에서는 참석자 285명 중에서 225명(79%)이 결신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행복드림콘서트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부모 209명이 세례를 받았다.

문의: 02-3215-3214,

010-5914-3214

/ 이소정 기자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4월 22일, 약정서 작성, 전화, 홈페이지로 참여

4월 22일은 'NGO 더멋진세상' 정기후원 약정행사 날이다. 이날 예배에서 나눠주는 정기후원 약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전화나 홈페이지로 참여하면 된다.

이날 NGO 더멋진세상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와 이천만광장, 양재 온누리교회 원형광장 등지에서

선교체험 테이블을 운영한다. 우간다와 르완다 커피를 맛볼 수 있고, 남수단 난민촌 VR(가상현실), 말라리아 예방 모기장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미얀마 북서부 벵마육 지역에 살고 있는 미전도종족 그두족을 위한 보건소를 완공했다.

문의: 02-2271-224

“장애(障礙)는 장애가 될 수 없다!”

서빙고 주차사역팀 유창준 집사와 장철현 성도

밤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서빙고 주차사역팀 유창준 집사(신용산공동체)와 장철현 성도(성북공동체)다. 그들이 별처럼 빛나는 이유는 건강한 사람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주차봉사를 불편한 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이다.

유창준 집사는 어릴 적 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쳐 걷는 게 불편하고, 장철현 성도는 청각장애 3급이다. 보청기를 끼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들은 자신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수많은 차량과 성도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우리 교회 작은 영웅들이다. 불편한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는 기자의 우문(愚問)에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어서 오히려 보람된다”고 헌답(賢答)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주차봉사를 하고 있는 유창준 집사(좌)와 장철현 성도(우)



“정말 귀감이 되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 또 없습니다.”

서빙고 주차사역팀 조성수 팀장의 칭찬이 자자하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것일까? 지난 주일(8일) 그 주인공들을 만났다.

먼저 만난 이는 유창준 집사다. 그를 만나자마자 조 팀장이 왜 그토록 칭찬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유 집사는 참으로 유쾌하고 호탕한 사람이다. 군더더기 없는 사람이다. 인터뷰 요청에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며 극구 사양하는 겸손도 갖췄다.

유창준 집사는 서빙고 주차사역팀원이다. 매주 주일 2부 예배가 시작되면서부터 마음이 급해진다. 유 집사가 섬기고 있는 구역은 교회 후문 초소다. 서둘러 초소로 향하는 그의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였다. 그는 어릴 적 사고의 여파로 다리를 절고 있다.

유 집사는 불편한 걸음걸이로 이곳저곳을 다니며 주차안내를 하고 있다. 다리를 절기 때문에 사역하는데 불편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 모습이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범선의 선장처럼 위풍당당하기까지 하다.

사실 주차봉사는 성한 몸으로도 힘들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처음에는 공동체 주차봉사를 했는데 제가 조금 잘했나 봐요(웃음). 총무님께서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에서 함께 봉사하자고 제안하시더라고요. 스카우트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걷는 게 불편한데 주차봉사 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숙달돼서 괜찮아요. 이래봐도 주차봉사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유창준 집사의 주일 일정은 이른 시간에 시작된다. 그에게 주일은 ‘주차봉사의, 주차봉사를 위한, 주차봉사에 의한’ 날이기도 하다.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 교회에 온다. 새벽 5시 30분부터 주차봉사를 시작해서 오후 4시 30분까지 섬긴다. 중간 중간 휴식 시간이 있지만 집에 돌아가면 몸이 빠글빠글 정도로 피곤하다. 아픈 다리가 더 아프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차봉사의 자리를 한순간도 비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주차봉사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임무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능력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에 작은 영웅이 또 있다. 장철현 성도가 그 주인공이다. 장 성도는 청각장애 3급 장애인이다. 보청기를 끼고 있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다. 그런데 그와 함께 주차 봉사를 섬기고 있는 동료들조차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전혀 내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철현 성도에게 주일은 매우 기쁜 날이다. 예배도 드리고, 주차봉사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주차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쁘지 몰라요. 제가 주차봉사를 잘 하고 못하고

를 떠나서 할 수 있다는 뿌듯함과 행복함이 고스란히 느껴지거든요.”

장 성도는 늘 기쁜 마음으로 주차봉사를 섬기고 있지만 주차봉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할지 말지 1년 동안이나 고민했었다.

“혹시나 제가 주변에 폐를 끼치는 건 아닌지, 과연 주차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좋다. 피약별도 상관없다. 날씨는 그가 주차봉사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되지 못한다. 그 이상의 보람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 주차봉사 하면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곳은 날씨에도 무사히 주차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장철현 성도의 아내 이정아 성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주차사역팀 홍행국 집사가 주차봉사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후 걱정이 더욱 커졌다.

“사고 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까 남편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마음으로는 말리고 싶지만 남편의 뜻이 워낙 확고해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를 그만두라는 말 대신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장철현 성도도 주차봉사를 하면서 힘들 때가 왜 없겠는가. 그에게 주차봉사를 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

했다.

“성도님들이 기다리지 않도록 빨리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물리적으로 잘 안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안타깝고요. 아마 다른 주차사역 팀원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교회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도 죄송할 때가 많고요.”

그의 겸손한 대답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그에게 주차사역은 단순한 봉사의 개념이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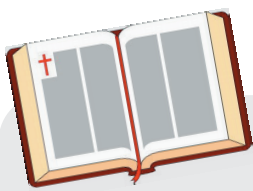
“저에게 주차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첫걸음이에요. 감사함과 섬김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듯이 주차봉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주차봉사를 함께 섬겨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유창준 집사와 장철현 성도에게 장애는 더 이상 좌절이 아니다. 단순한 불편함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했다. 그 행복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는 비를, 눈이 오는 날에는 눈을 기쁜 마음으로 맞으면서 주차봉사를 섬기고 있다. 피약별이 작렬하는 한여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늘도 성도들의 안전과 주차 편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유창준 집사와 장철현 성도, 그리고 주차사역팀 모두에게 응원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서빙고 주차사역팀 봉사자 모집

시간: 주일 오전 5시 30분~오후 3시 40분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문의: 02-3215-3266, 010-4592-1652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상처와 아픔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치’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한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영역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께서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이 왕이자 통치자로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창조 이후 아담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원래의 계획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회복되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눅 17:20-21).

‘너희 안에 있다’ 혹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with in you)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내면에 임함으로써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의 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의 인격적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뜻합

니다. 또한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공동체와 사회 질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안에’가 아니라 복수형인 ‘너희 안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믿음이 거의 파선할 뻔한 적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거룩을 추구할 때였다.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거룩하고자 한다면 고립된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룩을 추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내면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관계를 통하여 임합니다. 공동체와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공동체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질서대로 누가 더 높은지의 문제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만물을 유지하는 질서 ‘권위’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 사람인지를 두고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며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지를 두고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과정 중에도 제자들은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문제가 제자들만의 문제일까요?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 공동체, 사회 속에서 나타납니다. 제자들에게만 지속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문제라기보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다른 사람 보다 열등하다는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모였을 때도 보이지 않는 서열싸움을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든지 상대방을 평가하고 누가 더 높은지를 생각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 그러한 인식이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서열싸움이 무섭게 변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들이 권위에 대한 굶주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주 만물을 아무렇게나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권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과 주권들과 권력들과 권세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함께 서 있습니다”(골 1:16~17).

여기서 ‘서 있습니다’는 단어와 영어의 ‘제도(system)’가 어원이 같습니다. 만물을 유지하는 질서가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유지하고 지키는 선한 권위를 의미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있고, 교사의 권위가 있고, 지도자의 권위, 인간의 권위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생물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물을 움직이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물을 떠서 절을 하고,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는 것은 죄입니다.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라고 주신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연구소에서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신 권위를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권위를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권위가 권력이 되고, 타락한 권세가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예수님

우리가 싸우는 권력, 세상의 주관자들, 악의 영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세력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세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인정할 때 그 권위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하나

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권위가 권력이 되고 악이 됩니다. 악이란 인간이 세운 기준 이전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악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를 남용하고,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용하고, 만물의 질서를 혼란하게 만드는 권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 세상의 권세와 타협하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의로운 분을 세상의 악한 권세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도전한 것입니다.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역전시켜서 십자가를 통해 이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의 권세를 무력화시킨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주인으로 드러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체휼하고, 믿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회복되는 그날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거역하다 사라지는 세력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며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어느 편에 서야 할 지가 너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반항입니다. 육신이 약해서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이 약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모두 무너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권위에 대하여 세 가지 태도를 견지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12면에 계속>

기획 발달장애인의 발달단계별 과업(課業)

영·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맞춤형 돌봄을

장애인 섬기는 일은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명이자 부르심
자녀의 장애 수용, 상호작용 촉진, 취업, 돌봄 자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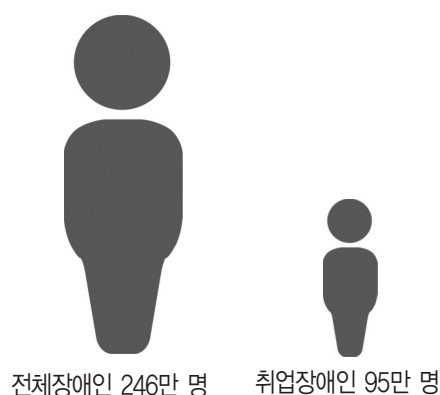
지난달 27일 또 한 번 불쌍사나운 뉴스를 봤다. 서울 모 지역 특수학교 설명회장이 고성과 아유로 얼룩졌다는 소식이었다. 지난해 9월 특수학교 설립을 간청하는 한 학부모가 무릎 꿇고 호소한 지 반년이 지났건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일부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진 사회가 건강하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회를 기뻐하신다. 바로 그 사회는 정책이나 제도를 만드는 특별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앞장서야 할 일이다. 당연히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일환으로 발달장애인들의 발달단계별 과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술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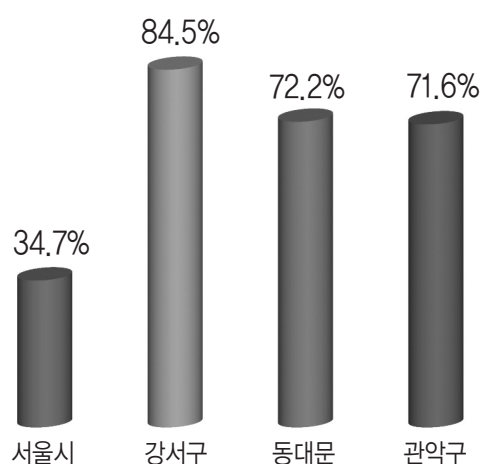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자

출처: 2017년 장애인고용통계



서울시 발달장애인 공공복지 미수급률

출처: 서울연구원



*공공복지란 국민들에게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보장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된다. 이 시기는 다양한 치료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는 시기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돌봄부담감 및 관련 변인 연구>에 따르면 학령기가 발달장애인 부모가 가장 부담을 많이 느끼는 시기다.

박기화 집사도 아들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가리지 않았다. 운동, 음악, 놀이 등 다양한 교육을 받게 하려고 센터를 여러곳 다녔다.

“아들을 위해서 제가 전지전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결정하고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더라고요.”

박 집사는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갔다. 아들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막막했다. 그 순간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사랑에 눈물 흘리면서도 원망하는 날도 많았다.

“예수님은 장애인 자녀 안 키워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 심정을 아세요?”

학령기에 겪는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다. 사춘기다. 발달장애인들도 사춘기를 겪는다. 표현만 다를 뿐이다. 조 집사는 아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왔을 때 몹시 당황했었다.

“별 일이 아닌데도 울더라고요.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복과 성장을 위해 일정한 치료와 교육이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관심을 보이고 배우고 싶어 하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문제행동을 보일 때는 행동을 먼저 교정하기보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어떤 문제행동이 있는지를 정의하고,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 행동수정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실행 및 평가해야 한다.

청년기, 장·노년기 발달장애인의 과업

발달장애인이 청년기가 되면 부모들은 취업을 걱정한다. 취업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장애인

장애인으로, 장애인의 부모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 글을 쓰는 나의 오빠도 장애인이다. 고로 나도 장애인 가족을 둔 사람이다. 그래서 장애인으로, 장애인 부모나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다. 모든 장애가 힘들지만 성인이 되어도 자립하지 못하는 발달장애는 더 힘들다. 발달장애는 인지능력, 의사소통, 사회성, 자기통제 능력이 결여된 증상을 말한다. 기본적인 일상부터 사회활동까지 제약이 없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평생 부모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이 250만 명인데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21만 8천 1백 명 정도다. 전체 장애인의 8.7%를 차지한다. 장애인 100명 중에서 8명이 발달장애인 셈이다. 우리 주변에서도 발달장애인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그들 옆에는 늘 부모나 보호자가 있다.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육 부담과 지원 욕구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시간이 평일 15.3시간, 주말 21.2시간이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하루 일과 대부분을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데 쓰고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들은 자녀

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고통이다. 자녀의 출생, 장애진단, 교육 및 치료비 부담, 사회활동 제약, 사회적 고립, 정신적인 고통 등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영유아기 발달장애 발견과 필요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 줄 알았어요.” 박기화 집사가 아들 이상용 형제(31세, 예수 사랑부)에게 발달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아들이 돌이 막 지났을 무렵이었다. 접시와 동전을 반복해서 돌리는 행동만 하고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랐다. 때마침 언어치료 관련 방송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아들과 같은 행동을 하면 ‘자폐성 발달장애인’으로 진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그 순간 상용이가 보이는 특유의 행동만 없다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박 집사와 비슷한 생각을 한다. 그만큼 충격이 크다는 말이다. 수치심, 우울, 죄책감, 분노 같은 강력한 정서적 반응도 보인다. 조재현 집사도 그랬다. 조 집사의 아

들 박상우 형제(20세, 사랑부)는 저체중아로 태어났다. 체중이 2.5kg에 불과했다. 저체중이지만 곧 뽀글뽀글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왼손을 쓰지 못했다. 병원에 갔더니 물리치료를 권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편마비가 온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뇌병변과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래도 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런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물리치료사의 말 한마디가 조 집사의 희망을 앗아갔다.

영유아기, 학령기 발달장애인의 과업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는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발달단계별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영유아기(만 6세 이전) 발달장애인에게는 놀이를 통해 상호작용 능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이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의사표현할 때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한다. 또한 로션을 아동의 배, 다리, 팔 등에 마사지해주듯 발라주면서 몸의 명칭을 이야기하거나 노래를 불러주면 감각운동 기술을 촉진시킬 수 있다.

학령기(만 7~18세) 발달장애인은 일반학교, 특수반이 있는 일반학교, 특수학교를 다니게

고용공단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전체 장애인 구직자(14,329명)의 23%에 불과하다. 외부 신체 장애인 취업률(65%)의 반절도 되지 않는다.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취업률은 2% 밖에 안 된다. 조 집사의 아들은 올해 3월부터 주간보호센터에 다니고 있다. 조 집사는 아들이 취업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고통 그 자체였다.

“24시간 동안 아들과 집에만 있는데 막막하

더라고요. 그때는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었어요.”

그때 조 집사에게 힘을 준 존재는 공동체다. 아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놓고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다. 공동체 지체들은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아마 저 혼자 그 시간을 보냈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때는

부모가 조력자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일상에서 자녀의 강점과 특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주간보호센터나 직업 및 문화여가 프로그램 통해 강점과 재능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힘든 시기는 노년기다. 발달장애인들의 노화 속도는 매우 빠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들의 노령기준이 각 나라마다 다르다. 대체적으로 40~50세가 기준이다. 이 시기 발달장애인들이

돌봐줄 부모나 형제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관심과 사랑’이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고, 공감과 위로와 지지를 아낌없이 보내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부르심이다.

목회칼럼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4월 2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자폐인의 날’이었다. 굳이 이런 날을 정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해 준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250만 명 중에서 약 8.7%가 발달장애인이다. 서울에만 3만 명 정도의 발달장애인이 있다. 그런데 아직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 평균 복지 수준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다. 오죽하면 ‘장애인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선진국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일까.

이 땅에서 장애인을, 특히 발달장애인을 키우는 가족으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원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이다. 장애인 자녀가 홀로 살아갈 세상이 걱정된다는 것이 그 이유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매우 큰 충격이었는데 벌써 이 말을 들은 지도 오래되었다. 여전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장애인 자녀보다 하루라도 더 사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는 장애인 정책의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인지 부모들 나름대로 더욱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되는 것 같다.

내가 발달장애인의 부모라면?

만약 내가 발달장애인을 둔 부모라고 가정해보면 쉽게 공감할 수 있다. 어느 날 우리 아이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말하고, 걸음마를 배우는 것이 조금 느릴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제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발달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때 부모가 받는 충격은 실로 엄청나다. “왜 우리에게 장애인 아이가 태어났을까?”, “이 사실을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 등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한꺼번에 몰려온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심리적 충격으로 처음에는 장애인 자녀를 두었다는 현실을 부인하고, 자책한다. 또 죄책감으로 인한 우울증상을 호소하고 현실회피를 반복한다. 어느 정도 충격이 잦아들면 비로소 내 자녀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된다. 장애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에 대한 가이드를 어디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은 생애 초기부터 준비되어야 된다. 영유아기에 장애를 빨리 발견하고, 장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맞는 맞춤교육과 자립, 자활까지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양육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장애인 자녀의 사

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이 쉽게 따돌림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버거운 일이다. 가슴 졸이며 하루하루 아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학교 오가기를 반복하면서 말이다.

이때부터 비장애인 형제자매들과의 문제도 불거지기 시작한다. 발달장애인 자녀에게 부모의 관심을 빼앗겨 버린 비장애인 형제자매들의 소외감과 섭섭함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형제자매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는 장애인 형제자매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감마저 짊어져야 한다. 비장애인 형제자매들은 이러한 양극단적인 감정을 겪으면서 쉽게 분노하고 갈등한다. 그렇다고 부모에게 “나도 좀 봐 달

어져야 한다. 신체적으로 성인이 되었고, 자신보다 힘이 센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것은 매우 힘겨운 일이다. 또 집에서 돌보면 돌볼수록 상황이 나빠진다. 누군가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면 그나마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사회성과 대인관계 언어능력 등이 유지될 수 있지만 고립되면 이러한 능력들이 퇴보하게 된다. 여기도 부모들의 나이가 많아지면 스스로의 건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데 발달장애인 자녀까지 옆에 있으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 가늠이 안 된다.

발달장애인 자녀가 노년기에 접어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돌볼 부모가 사라지는 순간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의 책임은 다른 가족으로 전가된다. 이제는 형제자매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한다. 이는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보면 왜 발달장애인들의 부모들이 자녀보다 하루 더 살기를 원하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사랑이 무엇일까?

사랑이 무엇일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해에 기초한 사랑이다. 빌립보서 2장 6~7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 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공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은 판단과 비난보다 이해받고 공감받을 때 비로소 마음을 열게 된다. 그리고 마음을 열었을 때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장애인 돌봄은 장애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정을 살리는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가 성육신적인 태도로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한다. 그러면 장애인 가족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장애인 한 사람에게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한 가정을 살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육신적인 태도로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입장을 이해하고 보듬어 줘야 한다.

회적응이 빨라지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기 진단체계를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서 부모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문기관이 그리 많지 않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 아이와 씨름하며 정신없이 시간만 보내게 된다.

아이는 어느덧 성장해서 학교에 갈 나이가 된다. 본격적으로 학령기가 시작되면 특수학교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통합교육을 하는 일반학교를 보낼 것인지를 놓고 선택해야 한다.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보통 특수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학교에 보낸다. 부모는 미리 선생님을 찾아가 아이의 장애행동과 특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일반교사가 이를 100% 이해해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도 아이가 학교에 가있는 시간만큼은 고된 돌봄에서 해방되지만 마음을 놓지 못하는 것은 마잔가지다. 학내 분위

리”는 말을 하지 못한다. 돌볼 수 없는 현실을 알기에 스스로 사치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큰 탈 없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고비는 또 있다. 진짜 심각한 고민이 다시 시작된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의 경우 학령기가 끝나면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은 학교를 졸업해도 마땅한 직장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취업을 하지 못하면 사회적 단절이 생기고 고립이 심화된다. 학교는 이미 졸업했는데 복지관에서는 장애가 심하다며 받아주지 않는다. 그나마 갈 수 있는 곳이 주간보호시설이나 발달장애인 평생 교육센터인데 서울에도 많지 않다.

청장년기 발달장애인을 위탁할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가정에서 부모의 돌봄이 이루

이주민들 사이에 ‘일대일’ 바람이 분다

말씀 먹이고 마시는 ‘남양주 온누리M미션’

남양주 온누리M미션 이주민들 사이에 일대일 제자양육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 네팔에서 온 썬주 자매와 묵단 형제가 있다.

그들은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고나서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부활절 이주민을 위한 전도집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 수료식이 병행됐다. 그 현장에서 그들을 만났다.

/ 이소정, 권찬송 기자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한 묵단 형제와 썬주 자매.



노방전도를 도와주러 온 서빙고 전도폭발팀.

“온 마음을 다해 섬겨주시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썬주 자매의 눈과 코가 빨개졌다. 목이 매여 잠시 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녀의 고향은 네팔이다. 21살 때 오빠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는데 딱 거기까지였다. 2015년 그녀가 33살이 되었을 때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 한국에서도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그때도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했다. 한국에 온지 1년 뒤 아는 언니를 통해 남양주 온누리M미션을 알게 됐다. 그녀는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 처음 온 날을 잊지 못한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주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주민들이 먹을 음식준비부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갈 때까지 챙겨주는 그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교회를 다녔지만 이렇게 따뜻한 교회는 처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녀는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 와서 신앙도 한층 성장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일대일 제자양육이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자체가 좋았다.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좋고 행복할 수가 없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이 차고 넘쳤다. 기도시간도 늘어났다. 전에는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10분을 넘기지 못했는데 지금은 한 시간이 금방 간다. 일상도 달라졌다. 전에는 휴식시간만 되면 드라마를 봤는데 지금은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감동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네팔로 돌아가면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을 전할 거예요. 제가 느낀 기쁨을 전하고 싶거든요. 모두 남양주 온누리M미션 덕분이예요.”

가장 큰 축복이자 최고의 선물

썬주 자매처럼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이주민이 또 있다. 묵단 형제다. 그의 부모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지만 그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 17살 때는 교회에 가자는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가출을 했다. 그렇게 혼자 살다보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좋은 직장도 구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꿈과 비전이 없었다. 2008년 목사인 삼촌을 따라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 3년 전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뒤로 삶이 180도 달라졌다. 친구 따라 온 남양주 온누리M미션을 만났기 때문이다. 묵단 형제 변화의 중심에도 일대일 제자양육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피부로 와 닿았고, 양육자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위로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었다.

“양육자님과 한강을 산책했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당시 한국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양육자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격려해주셨어요. 그때 그 격려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요즘 묵단 형제는 전도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면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날 때마다 전도하고 있다.

“저에게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자 최고의 선물이에요.”

묵단 형제는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서 개최한 부활절 이주민을 위한 전도집회에서도 전도대상자들에게 복음을 마음껏 전했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서 개최한 부활절 이주민 전도집회는 그야말로 천국잔치였다. 부활절 이주민을 위한 전도집회는 푸짐한 저녁 식사 교제로 시작했다. 인도와 네팔에서 온 형제자매들과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쳐 음식을 만들었다. 양고기볶음, 닭볶음탕, 인도식 카레, 감자튀김, 토마토 등 각 나라

를 대표하는 음식들로 한상 차렸다. 그중에서 양고기볶음의 인기가 단연 최고였다. 이주민들이 고향에서도 일 년에 한두 번 밖에 먹지 못하는 비싼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리운 고국의 음식과 다른 나라의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전도대상자들이 닫힌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기 시작했다.

이어진 예배는 백진주 집사의 바이올린 연주로 문을 열었다. 이주민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감동적인 연주였다. 인도 국가와 인도 영화의 주제곡을 연주했는데 인도와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아름다운 열매도 맺혔다. 노방전도 하면서 만난 인도에서 온 구리 형제는 전도집회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앞으로 교회도 나오고 예수님도 믿고 싶습니다.”

온 누리에 하나님 나라 세워지기를

남양주 온누리M미션은 창립된 지 올해로 14주년이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보다 1년 먼저 창립됐다. 2004년 남양주에 있는 공장과 농장에서 수많은 이주민들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주민사역을 위한 기도모임이 결성됐는데 그 모임이 모태가 되어 ‘온누리미션공동체’가 출범했다. 온누리미션공동체가 또 다시 ‘남양주 온누리M미션’의 토대가 되었다. 그 때부터 이주민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 섬기고 위로했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은 2005년부터 본격적인 이주민사역을 시작했다. 때마침 남양주 온누리교회도 생겼다. 처음에는 인도에서 온 이주민 2~3명을 초대해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창립 3주년 즈음부터 네팔에서 온 이주민들이 오기 시작했다. 점점 인원이 늘어나면서 2011년부터는 인도어와 네팔어 예배를 따로 드리고 있다. 지금은 인도어와 네팔어 예배에 각각 20여 명의 이주민들이 출석하고 있다. 그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모여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이 남양주 온누리M미션 예배만의 특징이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식사에서는 이주민을 위한 맞춤형 음식이 차려진다. 인도와 네팔 음식을 직접 만들고, 그들과 함께 먹은 다음 예배드리고 있다. 고향 음식을 대접받은 이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뜨겁다. 그 밤 한 끼가 인도어와 네팔어 예배공동체를 탄생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이주민들과 한 식구(食口)가 됐다.

또한 남양주 온누리M미션은 2015년부터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이주민들을 양육하고 있다.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고 있다. 지난해에는 인도 해리 형제가, 올해는 묵단 형제와 썬주 자매가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했다. 이외에도 남양주 온누리M미션은 이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와 다문화가정을 위한 토요문화교실 등도 지원하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남양주M센터’를 건립하는 꿈이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에는 인도와 네팔에서 온 이주민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온 이주민들도 있다. 남양주 온누리M센터를 통해 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 온 누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다.

토요 다문화교실 교사 모집

일시: 매주 토요일 2시~5시
장소: 남양주 온누리교회
분야: 댄스, 난타, 리코더, 바리스타, 한국어, 노래교실 강사
문의: 양옥진 전도사(010-3937-3927)

토요 의료봉사자 모집

일시: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6시~9시
장소: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상: 치과, 안과 의사, 약사, 섬김이 등
문의: 양옥진 전도사(010-3937-3927)



황숙희 권사의 백수(白壽)로 이어진 삶과 신앙의 지혜서 3

아름다운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살고 싶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고 싶다. 정직하고 기쁨으로 덕을 세우며 살고 싶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기쁨과 소망을 주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로 온전히 죄 씻음을 받고 축복받는 자가 되었다. 은혜 중의 은혜인 십자가를 통해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간다.

날마다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생을 바라보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 오늘을 진실하고 정의롭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솟아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가족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폭포수처럼 쏟아주시는 풍요와 평안과 기쁨과 만사형통이 함께하는 복을 누리려하겠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된 나는 지나간 일생을 돌아보았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랄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 땅의 옷을 벗고 주 앞에 서는 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그분의 환한 미소를 보고 싶다. 그분과 한 상에 앉아 떡을 떼고 싶다.

고난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고, 샘물처럼 솟아나는 성령의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할 것이다. 이 땅을 떠나야 할 순례자의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많은 것들이 사라졌지만 나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것이다.

산 소망이 있기에 힘이 솟는다. 영생 구원이 있기에 기쁨이 솟는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나무는 늙어도 진액이 풍부하다. 늘 푸른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다.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푸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다

우리의 맥박이 멈출 때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주님 구속의 은총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할 수 있으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안다.

죽음은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하루를 지나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 오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고,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새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감사는 신앙의 표현이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참 지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참 지혜는 나의 무익함을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지혜가 감추어져 있다.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이다.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안식

행복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다. 주님은 어느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았고, 죽음을 통해 참된 사랑을 꽃 피웠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된 죽음이고 그분이 뿌리고 간 사랑의 씨앗은 두고두고 많은 사람의 삶 속에서 꽃피울 것이다. 마음의 준비가 있건 없건 죽음이 닥쳐오면 우리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사는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은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귀하고 귀한 것이다.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며 겸손의 삶을 살아가야겠다. 머리로 입으로만 믿는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 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길이길이 남아 있게 되기를 소망한다.

기고

부모의 자녀교육 VS 성경적 자녀교육



김우진 성도
(부천 온누리교회, 목동 특목고 학원 외고반 담임)

그 아이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고등학교 입학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외국어고등학교로 목표를 바꾸려 했다. 당시 나는 목동 특목고 입시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 외고반 담임이었다. 그 아이 어머니의 말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재소리를 듣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과학고등학교 입학을 목표로 공부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왜 중학교 3학년이 되어서 외국어고등학교로 목표를 바꿨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 아이와 면담을 했다. 그 아이는 내가 묻는 말에 별로 대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서야 조용히 이야기했다.

“선생님 저는 과학고등학교에 들어갈 만큼 뛰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머니가 반

대하고 계시지만 가능하다면 저는 외국어고등학교로 진로를 바꾸고 싶습니다.”

나는 “그럼 선생님 어머니께 얘기를 대신 해줄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선생님이 말씀하셔도 소용없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커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거든요”라고 대답했다.

이야기하는 내내 그 아이의 표정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얼마 후 어머니와 그 아이의 진로이야기를 해보았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 아이 말처럼 어머니의 기대가 너무 커보였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조용히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이의 결정에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셨다. 결국 그 아이는 어머니와의 의견차이 때문인지 얼마 안 돼 학원을 그만뒀다. 아직도 그 아이의 그때 그 표정이 생각나서 안타까운 감정이 들곤 한다. 그날 이후에도 나는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과 부모들의 의견 차이를 자주 목격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와 아이

들의 의견차이로 생기는 자녀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생각하다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엡 6:4).

어느 사회학자나 교육학자,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보다 성경이 자녀교육 문제 해결책을 정확하게 짚었다. 나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다. 부모와 자녀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심경을 담은 이야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작은 좋을지 몰라도 그 끝은 서로에 대한 실망감만 남게 된다. 결국 부모는 상심하고, 자녀는 상처를 받는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마음속에 노여움을 갖는 일이다. 청소년기에 갖게 되는 노여움은 내면의 상처로 남거나 부모와 사회에 대한

반항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말씀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공정하신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해야 한다.

한국 사회 대다수 부모들에게는 자녀교육이 가장 우선시 되는 가치인 것 같다.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부모에게는 자녀교육이 소명인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그러한 부모의 희생과 헌신도 자녀들의 적성과 희망과 다르면 안 된다. 자녀들이 부담을 느끼거나 지나친 기대로 생각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성경에 기초해서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이 기본이다. 먼저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녀들의 희망이 아니라 부모의 기대가 아닌지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특별기고 유신진화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 3

유신진화론의 교묘한 말과 철학은 모두 헛된 속임수



이은일 정로
(한국창조과학회
고려대 의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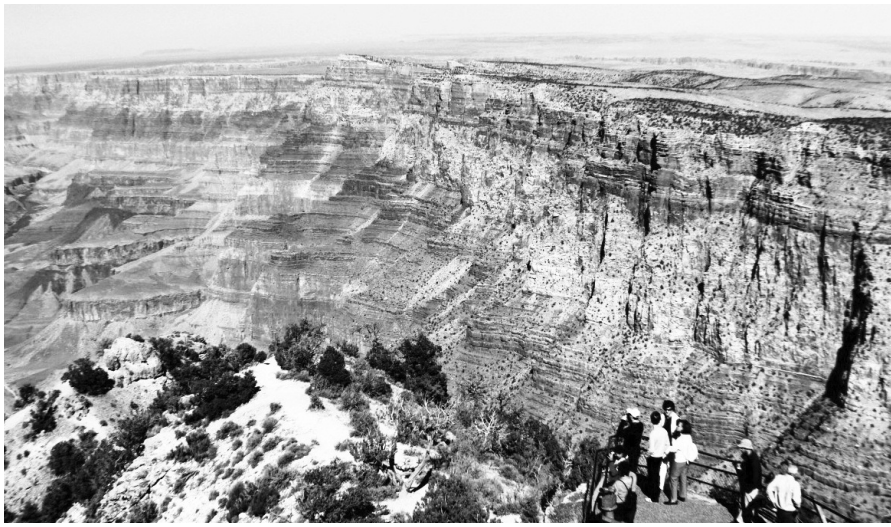
진화론이 하나님의 창조를 대신할 수 없다고 믿는 기독교 진영이 과학 분야에서 진화론에 대응하는 주된 방법은 창조과학이었다. 창조과학은 진화론의 거짓된 증거들을 밝히고,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지층과 화석이 도리어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의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진화론에 대응하는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법이라고 인정받았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이 등장하면서 진화론에 과학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창조과학만은 아니며, 도리어 진화론을 거부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을 거부하는 창조과학을 사이비 과학 취급을 하고, 진정한 과학인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성경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려는 오류를 범한다고 주장한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닌데 성경에 기록된 창조사건과 대홍수 심판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은 성경과 과학을 분리시키고, 성경과 과학을 연계한 창조과학을 비판하며,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맞으므로 성경 해석을 바꿔야 한다는 단계별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반면 창조과학은 성경과 과학을 분리시키지 않는다. 창조와 대홍수 심판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과학적 증거들을 제시함으로써 진화론에 대응하고 있다. 창조과학을 비판하는 유신진화론도 사실 과학과 성경을 함께 다루고 있는 것이다. 다만 자신들은 진화론 과학을 우선으로 하고, 그에 따라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유신진화론은 성경과 과학을 분리시킴으로써 성경에 기록된 창조가 실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을 살짝 부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가 진정한 시작인지 진화가 진정한 시작인지는 아무도 완전하게 알 수 없다. 모든 물질세계를 시작하게 한 창조도 진화도 실험할 수도 관찰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관찰되는 물질세계가 창조되었는지 진화되었는지 분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놀라운 질서를 가진 우주 만물이 결코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직관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질서가 진화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설계되어진 것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창조과학과 유신진화론은 모두 성경과 과학



대홍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미국 그랜드 캐니언.

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창조과학은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믿으면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진화론을 비판하고 있고, 유신진화론은 진화론 과학이 사실이라는 믿음으로 초월적 창조에 대한 성경 기록을 거부하는 것이다.

반쪽 사실로 전체를 감추는 교묘한 주장

성경기록에 연관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과학 지식을 통해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와 문화의 이해 없이도 성경말씀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가능한 것처럼 과학적 해석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창세기에 기록된 창조와 대홍수 심판 사건을 성경 기록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창조과학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에 과학적인 해석을 붙이는 창조과학에 대한 유신진화론자들의 비판이 틀린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유신진화론의 이러한 주장은 반쪽 사실만을 드러내 교묘하게 상황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어떤 자녀에게 ‘거짓 유전자 검사결과’가 편지로 왔다고 가정하자. 편지에는 당신의 부모와 당신은 유전적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이 편지를 받은 자녀가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친 부모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가짜 편지를 보낸 악한 사람이 ‘이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 불효자녀’라고 공격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거짓 유전자 검사결과가 편지로 전달되었다는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자녀가 자신의 부모를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였다고만 이야기한다면 그 자녀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창조과학도 이와 유사하다. 성경말씀을 믿는데 창조과학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는 거짓

이고,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는 것을 교육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대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배제하고 성경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종교는 종교이고, 과학은 과학이니까 진화론에 대하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 될까? 아니면 그냥 말씀대로 믿으라고 하면 될까?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잘 알지 못해도 믿음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많다. 마치 거짓 유전자 검사결과를 받아도 그 결과를 믿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 창조과학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거짓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는 자녀를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한다고 창조과학을 비난하는 것은 반쪽 사실로 전체 상황을 호도하는 교묘한 전략이다.

진화론이 성경말씀의 진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명백한 사실을 거부하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가짜 유전자 검사결과를 믿고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것과 같다. 교회를 떠난 무신론자들은 가짜 유전자 검사결과를 믿고 분노하여 부모를 떠난 사람들로 비유한다면, 유신진화론자들은 가짜 유전자 검사결과를 믿으면서 부모와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과 같다. 자신의 부모가 친부모인데 친부모인 것은 거부하고, 양부모로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제발 가짜 검사결과에 속지 말고, 부모의 말을 믿어라. 아니면 다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해서라도 친부모 인지를 확인하라”고 말하지 않을까?

유신진화론자들은 비뱅이론이 현재의 우주 확장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론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대신할 수 있는 과학이론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주의 확장이 비뱅이론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비뱅이론 외에도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초월적

화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아직까지 필요한 도구이며, 어떤 과학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더 좋은 도구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창조과학이라는 도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적으로 돌려싸인 것과 한 성이 적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투를 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유신진화론의 철학과 속임수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이 진화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유신진화론적 성경해석이 정통적인 성경해석보다 우월할 수 있다는 표현을 직설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유신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논리의 허술함을 감추기 위해 어려운 용어들을 사용한다. ‘간격의 하나님’, ‘자연주의 철학과 자연주의 방법론’ 등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지성적인 것처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초월적인 것이며,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 유신진화론이나 무신론 진영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간격의 하나님’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간격의 하나님’이라는 용어는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하나님으로 채워버리는 것이다. 과학지식의 간격을 열심히 과학지식으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대체하는 잘못된 과학적 태도이다. 따라서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창조했다는 주장은 과학적 연구 없이 기원을 설명하려는 잘못된 접근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창조보다 과학적 방법론으로 창조를 설명하려고 하는 유신진화론(진화창조론)이 훨씬 지성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학은 물질세계 안에서 이뤄지는 질서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을 뿐, 물질세계 자체를 창조한 초월적 과정을 연구할 수는 없다. 그럴 능력도 도구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격의 하나님’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 자체가 거론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마아버리는 것이다. 즉, 하나님 없이 기원을 설명해야 과학이며, 하나님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이 있는가?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이건 우연한 비뱅에 의한 시작이건 그 시작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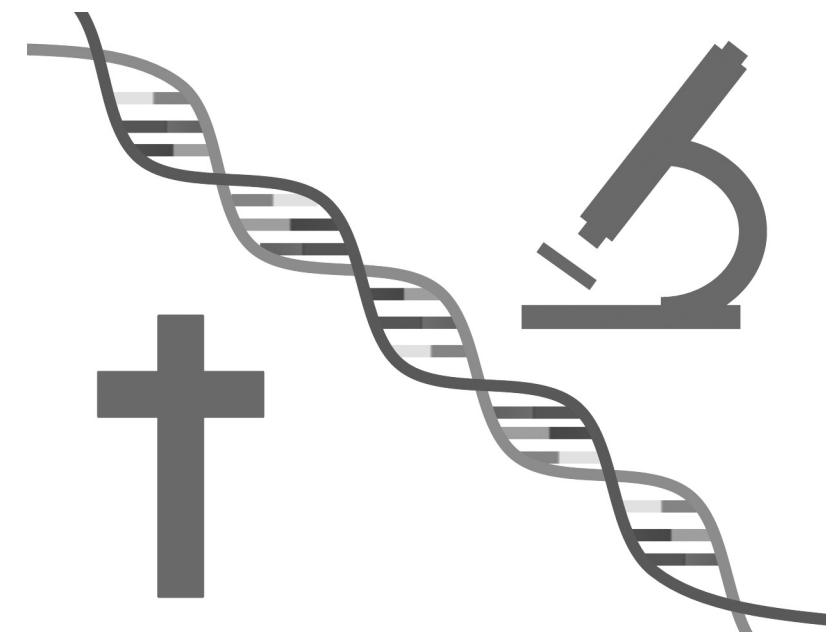
유신진화론자들은 비뱅이론이 현재의 우주 확장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론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대신할 수 있는 과학이론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주의 확장이 비뱅이론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비뱅이론 외에도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초월적

창조의 결과에 의해서도 우주는 확장될 수 있다. 비뱅이론이 우주 확장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처음 시작을 제대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은 아니다. 비뱅이론 자체가 새로운 발견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초기 비뱅이론이 인플레이션 비뱅이론으로 바뀌었고, 인플레이션 비뱅이론도 근본적인 시작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비뱅이론은 우주의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초기 물질이 비뱅 이전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초기 물질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 단지 그런 초기 물질이 있어야만 비뱅이론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있었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또한 그 초기 물질이 무슨 힘으로 폭발할 수 있었는지, 순간적으로 매우 높은 온도에 도달하게 한 에너지는 어디서 왔는지, 광속의 몇 천배 이상으로 공간이 어떻게 팽창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 우연한 비뱅으로 어떻게 이런 질서정연한 우주와 거대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지 등의 질문에는 답하기 어렵다. 비뱅이론이 맞다면 물질과 ‘물질을 없애는 반물질’이 같은 양으로 존재해야 하는데, 우주에 반물질이 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비뱅이론도 초월적 창조론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시작은 믿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간격의 하나님’이라고 비웃는 것은 과학 자체를 들여다봐도 얼마나 오만한 주장인지 잘 알 수 있다. 물질세계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오직 비뱅이론 하나에 매달리고 있을 뿐이며, 물질세계 자체의 질서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얼마나 모르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간격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과학의 발전으로 비뱅이론과 맞지 않는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면서 우주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미천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생명과학도 발전할수록 DNA 조절기능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과학의 현실인 것이다.

한때 비뱅이론을 주장하던 많은 과학자들이 비뱅이론을 떠나 ‘다중우주이론’으로 가고 있다. 비뱅이론 자체의 한계도 있지만, 한 번의 비뱅이론이 있는가?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이건 우연한 비뱅에 의한 시작이건 그 시작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나?

유신진화론자들은 비뱅이론이 현재의 우주 확장을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원을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이론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적 창조를 대신할 수 있는 과학이론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주의 확장이 비뱅이론만으로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비뱅이론 외에도 다양한 이론이 있으며, 초월적



“진화론자들이나 유신진화론자들은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이 과학을 하는 근본적인 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하면 이 이론에 의하면 관찰할 수 있는 별, 블랙홀 등 모든 것들을 합쳐도 우주를 확장할 수 있는 힘은 5%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머지 95%는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암흑물질(dark matter)과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암흑에너지(dark energy)로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우주에 대한 지식이 확장되니까 모르는 것이 95% 생긴 것이다. 물론 가속팽창이론도 이론 중에 하나일 뿐이며 거대한 우주는 놀라운 신비를 품고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고, 간격의 하나님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은 실제와는 거리가 먼 주장에 불과하다. 우주과학 뿐 아니라 생명과학 분야에서도 과학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2001년 인간 유전자 전체를 해독했다는 게놈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을 때 과학자들은 인간 유전자에 대하여 다 알게 된 것처럼 자신만만하였다. 연구 결과 인간의 유전자는 3만개 정도이며, 3% 정도만 유전자 기능을 하고 있고, 나머지 50% 이상(95% 정도)이 쓰레기 DNA라고 발표하였다. 과학자들은 진화과정 가운데 기능이 사라진 유전자들이 쌓여서 쓰레기 DNA가 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인간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전하면서 쓰레기 DNA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기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또한 유전정보를 조절하는 질서가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여 DNA 일부가 아닌 DNA 전체

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쓰레기 DNA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유전정보 조절에 대하여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2013년 필립 볼(Phillip Ball) 박사는 ‘DNA: 모르는 것에 대한 축제(Celebrate Unknowns)’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DNA를 통한 유전정보 조절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놀라운 질서는 진화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기술했다.

자연주의 철학 뿐 진화론의 허구

유신진화론자들이 잘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자연주의 철학’, ‘자연주의 방법론’ 등이다. 자연주의 방법론이란 물질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적인 방법을 의미하고, 자연주의 철학이란 물질세계가 전부이고 하나님은 없다는 무신론 철학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연주의 방법론은 ‘일반적인 과학적 방법론’으로, 자연주의 철학은 ‘무신론 철학’으로 바뀌어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용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음 유신진화론자들이 주장을 살펴보자.

“기독교인들이 과학인 진화론을 거부하는 것은 지적 자살이다. 과학은 자연주의 방법론(과학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주의 방법론(과학방법론)을 사용하는 진화론

은 과학이고 초월적 창조론은 자연주의 방법론(과학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다. 따라서 과학이 아닌 초월적 창조론을 창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비지성적인 것이다.”

쉽게 말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초월적 창조를 주장하는 것은 비지성적인 것이다”라는 의미다.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진화론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학 전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논리의 비약이다. 초월적 창조를 믿는 것이 아발로 성경과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찰한 논리적인 결과인데 이것을 비지성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거짓이다.

또한 유신진화론자들은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의 자연주의적 방법론은 수용하되, 자연주의적 철학은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유신진화론은 진화론 전체를 수용하지만 진화론이 주장하는 무신론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진화론 자체가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물질로부터 왔다는 자연주의 철학(무신론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인데,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은 받아들이지만 무신론 철학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진화론 안에 하나님만 갖다 놓으면 진화론과 창조주 하나님이 조화될 수 있는가? 성경말씀 어디서 그런 근거를 찾을 수 있나?

또한 유신진화론자들은 진화론이 과학이기 때문에 수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렇다만 성경에서도 찾을 수 없고, 과학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유신진화론을 그리스도인들이 수용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유신진화론이 초월적 창조론을 공격하는 논리나,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논리들은 모두 반쪽 사실이거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 교묘한 거짓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진리는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에 분명히 알려져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비뱅이론이나 진화론보다 초월적 창조론이 훨씬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주를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체의 유전정보 설계도를 쓰레기 DNA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진화론자들이나 유신진화론자들은 초월적 창조를 ‘간격의 하나님’이라고 비웃고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는 것이 과학을 하는 근본적인 태도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구촌 이웃들이 NGO 더멋진세상에 보낸 편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에게

NGO 더멋진세상의 또 다른 이름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이다. 그 이름에 걸맞게 NGO 더멋진세상은 가장 소외되고 도움의 손길
이 필요한 지구촌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전 세계 21개국 27개 지역에서 집, 학교, 보건소 등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사랑도 전하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의 사랑과 섬김이 너무 고마워서 지구촌 이웃들이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너무나 귀한 파트너”

저는 2014년부터 아프리카 세네갈 ‘찌아운 뽀냐그시’의 부시장을 맡고 있는 ‘이브라이 마 은도이’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을 만나게 된 것은 큰 기쁨이자 영광입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더멋진세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더 멋진 삶을 만들어 줄 거라는 신뢰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본나바 마을에서 식수공급, 건강지원, 양질의 교육환경 제공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시에서 모두 감당할 수 없었는데 NGO 더멋진세상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의 초청으로 새마을운동 훈

련을 배우기 위해 한국에 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접근법이 세네갈 본나바에서 보여준 NGO 더멋진세상의 방법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을개발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네갈 사람들이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서 전보다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건강도 되찾았고, 문해율도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파트너입니다.

/ 이브라이마 은도이(찌아운뽀냐그시 부시장)



세네갈 본나바 마을 우물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다.

포항 흥안교회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던 지진이 저희 교회를 덮친 것이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당시를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악몽 같습니다. 손이 떨리고 쿵 소리만 나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지진으로 무너진 예배당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의 수군거림에 창피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교회 하나 짓는 것은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를 돕고, 있는 자들은 없는 자들을 멸시하는 현실을 보면서 낙담했습니다. 어르신 성도들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암담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NGO 더멋진세상

이 한줄기 빛이 되어 주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당에서 잔해들이 실려 나가고, 바닥에 콘크리트가 부어질 때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설렘과 희망으로 하루빨리 교회건축이 끝나 새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흥안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두 손 모아 NGO 더멋진세상과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두천 목사(포항 흥안교회)

필리핀 비농안안 마을에서

“배푸는 삶을 배웠습니다”

필리핀은 2013년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NGO 더멋진세상이 우리를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때부터 필리핀 비농안안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NGO 더멋진세상을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태풍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안식처는 우리가 지붕 아래서 생활할 수 있게 해주었고, 나쁜 날씨와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다. 필리핀 비농안안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식수시스템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시스템이 없었다면 태풍이 오는 날에도 바닷가 근처에 가서 물을 길러 와야 했을 것입니다. 또 태양열을 설치해주셔서 밤에도 환한

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밤에도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NGO 더멋진세상이 제공해준 어선 덕분에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필리핀 비농안안 주민들의 삶에 큰 의미가 생겼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우리에게 준 도움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NGO 더멋진세상을 사용해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킨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NGO 더멋진세상이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보고 나누고 배푸는 삶을 배웠습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나누고 사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인지를 깨달았습니다.

/ 플로리타(비농안안 마을)



레바논 난민교육센터에서 시리아 난민 아동들이 교육을 받고있다.

레바논 시리아 난민교육센터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 사라는 7살입니다. 레바논 시리아 난민교육센터 플라워 반입니다. 사라는 교육센터에 다니는 게 재밌고 즐겁다고 합니다. 체육 활동을 가장 좋아합니다. 사라의 꿈은 수학선생님입니다.

저는 시리아 고등학교 아랍어 선생님이었고, 아이 아빠는 시리아 방송국 음향엔지니어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쟁을 피해서 레바논에 온지 약 2년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2016년 9월 NGO 더멋진세상이 난민들을 위해 만든 교육센터가 문을 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NGO 더멋진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은 교사였던 제가 봐도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것이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지내는 아이들이 평안을 찾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평온한 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주변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안정과 평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NGO 더멋진세상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난민 생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 로이(레바논 난민촌)

캠퍼스 전도집회 '희망노트' 4월 30일 시작

대학 신입생 수련회 'Be The Man' 도 실시

대학부가 캠퍼스 전도집회 '희망노트'를 개최한다.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오전 11시와 정오에 45분씩 명지대학교 용인캠퍼스 60주년 채플관에서 열린다.

캠퍼스 전도집회 '희망노트'는 말씀영상, 찬양 및 간증,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최성민 목사(온누리교회)이며 특별게스트는 가수 이미셀, 가수 김신의(그룹 Monni), 가수 홍이삭이다.

최성민 목사(온누리교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캠퍼스 전도집회 '희망노트'에 참석해서 교회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캠퍼스 전도집회 '희망노트'는 매년 열리고 있다.



2016년 호서대에서 열린 '희망노트'.

한편 허브공동체와 Pole2공동체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수련회 'Be The Man'을 개최한다. 허브공동체는 4월 28일 토요일 오후 3시 양재 온누리교회 비전홀, Pole2공동체는 5월 12일부터 5월 13

일까지 1박2일 동안 경기도 가평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허브공동체는 지난 4월 7일 홍익대학교 프리스타일 스페이스 이벤트홀에서 수련회를 실시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영등포구로공동체와 일본인들의

아주 특별한 두 번째 만남

지난 4일, 영등포구로공동체와 일본 아사히가오카 그리스도교회를 섬기고 있는 천행화 사모와 천 사모가 가르치는 한글교실을 다니는 일본인 7명이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영등포구로공동체와 일본인들의 만남은 지난해 7월 일본 아사히치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영등포구로공동체는 일본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서빙고 온누리교회 수요목양예배에 초청해 복음을 전했다.

오쿠보케이(74세) 씨는 "예배드리면서 한국 교회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고, 사토에이코(74세) 씨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면서 친근함과 따뜻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천행화 사모는 "영등포구로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 이소정 기자

간증

기쁘고 감사했다

4월 4일은 매우 뜻 깊은 날이었다. 지난해 동경 러브소나타를 갔다가 아사히가오카 그리스도교회에서 만난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했기 때문이다.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한 번 더 전할 수 있는 기회였다. 우리는 그들을 서빙고 온누리교회 수요목양예배에 초대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해 준 그들이 너무나 귀했다. 영등포구로공동체 지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섬김의 자세로 그들을 맞이했다.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했다.

무엇보다 지난해 받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교회를 방문해 준 일본인들에게 한없이 고마웠다. 또한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뜻에 조금이나마 순종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허락된다면 아사히가오카 그리스도교회에 매년 방문하면 좋겠다. 더 많은 일본인들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김성진 집사(영등포구로공동체)

5월 6일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중앙대학교병원과 함께 헌혈행사도 실시

5월 6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일이다. 이날은 택시,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와야 한다. 교회주차장은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 동반, 자녀 3명 이상, 첼로 연주자 등 사전에 주차증을 발급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이날 중앙대학교병원 헌혈센터와

서빙고 온누리교회가 함께 헌혈행사도 개최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Acts29 홀에서 진행된다.

헌혈을 희망하는 성도는 전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감기약 복용을 피해야 한다. 헌혈 후에는 소정의 상품과 다과 등이 제공된다.

/ 권찬송 기자

동부노인요양센터 어르신 9명 세례 받아

지난 4일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이하 동부노인요양센터)에서 18번째 세례식이 있었다. 이날 세례식에서는 이기훈 목사의 집례로 어르신 9명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세례식이 끝난 후는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직원들이 어르신들께 축복의 노래를 불러드리고, 기념촬영을 하며 축하했다.

이날 세례식에 참석한 한 보호자는 "아내가 이제라도 세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너무 감격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는 매년 4월 어르신 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선교를 배운다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 실시

선교전략과 과정을 배우는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이 4월 21일 오전 10시 서빙고 온누리교회 콘서트홀에서 실시된다. 선교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는 선교사 양성과 훈련을 위하여 매년 전반기와 후반기에 '온누리 선교 오리엔테이션(OMO)'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02-3215-3216

이메일: anam73@onnuri.org

더 즐겁고 더 행복한 센터 꿈꾼다

청파노인복지센터 개관 9주년 기념행사

지난 12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기관 청파노인복지센터가 개관 9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기념행사에는 청파노인복지센터 이용 어르신, 직원, 온누리복지재단 이사진, 성장현 용산구청장, 용산구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성은 목사(신용산공동체)

는 '의의 길로 걸어가는 축복'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다. 박 목사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며 "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백혁 센터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더 즐겁고 행복한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삿포로 기 · 도 · 제 · 목

- 4월 16일(월) 이재훈 담임목사님 영육의 강건함과 기쁨 부으심이 있도록
- 4월 17일(화) 러브소나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 4월 18일(수) 장소, 날씨, 숙박 등 필요한 모든 여건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 4월 19일(목) 모든 섬기는 사람들이 언어를 초월하여 연합과 일치를 이루도록
- 4월 20일(금) 예비된 영혼들의 마음이 열려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 4월 21일(토) 집회를 방해하는 사탄의 방해를 꺾고 성령 충만한 집회 되도록
- 4월 22일(주일) 행사를 준비하는 모든 스태프와 강사진들이 건강하도록

'창조과학탐사' 참가자 모집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탐사하는 '창조과학탐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28일 오전 8시부터 4월 29일 오후 8시까지 1박2일 동안 강원도 동해 지질공원 및 태백 구문소 일대에서 진행된다. 창조과학탐사에서는 창조과학의 타당성과 진화론의 모순을 배울 수 있다. 회비는 12만 원. 4월 2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현장등록도 가능하다. 문의: 010-7292-2349

102기 두란노 어머니학교 5월 2일 개강

102기 두란노 어머니학교가 5월 2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개강한다. 두란노 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인 자녀양육법을 가르쳐준다. 자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모든 어머니가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전화, 홈페이지(www.mother.or.kr)로 5월 9일까지 하면 된다. 선착순 80명을 모집하고 있다. 문의: 02-2182-9114

북한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북한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부터 오후 10시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진행된다. 북한선교학교에서는 북한선교의 역사와 중요성을 배울 수 있다. 5월 6일까지 아이스쿨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644

바이블칼리지 '성경적 부모교실' 특강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성경적 부모교실' 특강이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양재 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실시된다. 부모, 주일학교 교사, 교역자가 그 대상이다. 강의는 이기복 교수(성경적 부모교실 저자)가 한다. 회비는 15만 원.

문의: 02-2078-3456, 홈페이지: www.duranno.com/biblecollege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권위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권위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둘째,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돌려지는 것을 주의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언제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합니다. 스스로 영광 받는 것은 세상의 권세와 타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 사용하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지도자이건, 설교자이건 영향을 받되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지 마시고, 진정한 권위인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중매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역자든, 어떤 지도자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권위는 섬기는 권위

예수님은 권위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참된 권위는 다른 사람을 살아가게 하고, 힘 있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합니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역사상 그 누구보다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만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대항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 자들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나?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그를 시종드는 사람이나? 밥상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26~2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군림, 지배, 권력의 형태가 아니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의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은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것을 약함의 증거라고 합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게 하는 것을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섬기셨고, 십자가에서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지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상에 군림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무섭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와 회개 기회를 주시고, 스스로 낮아져 죽기까지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진정한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진정한 권위인 이유는 낮아짐과 섬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나 권력처럼 스스로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섬기신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은 섬김에서 오는 권위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권위는 타이틀(title)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건(towel)을 가지고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던 중에 물을 가져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세상은 타이틀이 중요합니다. 지위와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타이틀이 아니라 수건을 가지고 섬기시는 권위였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힘을 행사하고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위가 아니라 고난 받으심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25절).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28절).

세상의 권력자 중에 고난을 자청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스스로를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왕조시대에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부르는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르라고 강요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추악함입니다. 정신적인 착취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돌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은인으로 여기는 것이라 아니라 자칭 은인으로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을 은인으로 여겨달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 한다”(26절).

여러분,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위, 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권위에 대한 어린아이의 태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우리를 조종할 줄 모르고, 권력을 만들어서 행사할 줄도 모릅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해 무지합니다.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편견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을 은인으로 만드는 기술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에 낯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른은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할 줄 압니다. 세상의 권세를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극히 큰 자가 되는 길입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있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29~30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함께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이동엽 원장의 척추건강과 생활



이동엽 원장
(서초D공동체, 참포도나무 병원)

아프면 병원을 찾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요통처럼 척추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통증은 서둘러 병원을 찾을 필요는 없다. 만성적인 요통에 시달리던 사람보다 갑자기 허리나 목을 빼끗해 전에 없던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마련이지만 병원을 가는 것보다 안정을 취하는 것이 우선이다.

목과 허리의 굴곡이 잘 유지되도록 바른 자세로 누워 침상안정을 취하면 대개 통증이 가라앉는다. 잘못된 자세 때문에 근육이 경직되거나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돌출된 디스크나 터져 나온 수핵이 신경을 누르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디스크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수핵이 흡수되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다. 척수신경이나 신경근에 생긴 염증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경우도 침상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호전된다.

안정을 취한다고 해서 장기간 누워서만 지내는 것이 마냥 좋지는 않다. 근육이 퇴화해서 근력이 떨어지면 허리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다. 2~3일 정도 안정을 취해서 급성통증을 다스린 후에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은 통증을 해소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바른 자세로 생활하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른 자세와 운동은 휘거나 뒤틀린 척추를 교정하고, 근육을 강화시켜 통증 해소는 물론 척추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만성통증은 되도록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요통이나 다리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환자들을 보면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쉬면 괜찮다가

병원에 가야 할 타이밍

무리하면 도지는 식으로 통증이 반복되다 보니 과로나 나이 탓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또한 짝짝없이 누워 지내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데도 물리치료나 침, 약물치료 등에 의지해서 통증을 견디는 사람도 드물지 않다.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판별하기도 어렵고, 판별한다 해도 수술 외에는 크게 효과적인 대책이 없던 시절에는 참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통증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 간단하게 해결하는 시술법이 발달해 있으므로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만성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일수록 근육, 인대, 후관절, 디스크 등이 전반적으로 퇴화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인치료를 필요로 하는 사례가 훨씬 많다.

증상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응급상황도 있다. 통증 정도가 아니라 하반신 마비가 우려되는 경우가 응급상황에 해당한다. 척추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압박당해

다리로 가는 신경근을 전반적으로 무력화시키면 다리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힘이 빠지게 된다. 마치 고무다리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거나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질 때는 서둘러 병원을 찾아 신경을 압박하는 원인을 제거해야 하반신 마비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 대소변을 보기 위해 힘을 줄때마다 극심한 통증이 따르거나 아예 힘이 주어지지 않아 대소변을 볼 수 없는 경우도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응급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척추 질환을 ‘척추’(뼈 구조, 골격)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하지만 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은 척추 사이를 지나가는 ‘척수(신경)의 기능’에 달려있다. 치료가 올바르게 잘 되려면 뼈만 보지 말고 신경의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 파도는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친다. 파도가 칠 때 파도만 보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보아야 한다. 척추 질환도 마찬가지다.

어린이날 선교사 자녀 선물 보내기

1. 선물 준비 방법

- 1)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가 주관하여 다락방에서 준비합니다.
- 2) 주소확인 : 선교사님의 주소를 확인합니다.(국내에 계신 선교사님 포함), (각 공동체 선교사역자님들께 '선교사 자녀 선물보내기 주소와 명단'을 메일로 발송)
※ 보안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는 한국에 있는 선교단체로 배송료와 함께 선물을 보냅니다.
- 3) 편지쓰기 :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며, 순원들이 돌아가며 적는 방법도 좋습니다.
※ 편지에 반드시 각 공동체의 선교사역자 및 다락방장의 주소, 전화, 이메일을 기록하여 선교사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4) 선물준비
① 선물은 우편요금과 배송 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 실용적이며, 부피가 가볍고 깨지지 않는 것으로 적당한 가격 수준에서 준비해 주십시오.
③ 우체국 기준에 맞게 소포 포장을 하시면 됩니다.
④ 작은 선물이라도 선교지에서는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⑤ 해외 송금보다는 현지 선교사님 가정 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성으로 준비하여 주십시오.
⑥ 현지 도착 날짜를 고려하여 4월 중으로 발송해 주십시오.
- 5) 선물 준비 예시
(1) 도시락김 3개입 * 2개
(2) 통조림 깻잎 70g * 2개(매콤한깻잎, 깨끗한깻잎)
(3) 티오아이스티 * 1박스(40스틱)
(4) 밥이랑(또는 김자반) * 1개
(5) 타코야끼볼(과자류) * 1봉지
(6) 마가렛트 * 1박스(264g)
(7) 크런키볼(초코렛류) * 1통(76g)
(8) 마스크팩 * 2개
(9) 너트한춤(견과류) * 2봉지
(10) 쏘라C 딸기맛 * 1개(20정)
(11) 선교사 자녀 연령대에 맞는 문구 또는 완구
(12) 어린이일대일 교재 및 암송구절 찬양CD(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및 서적 선물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에서 어린이일대일 교재를 보내실 경우 대봉투에 교재와 CD를 넣은 뒤 밀봉하여 박스 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은 두란노서점에서 가능합니다.

2. 선물 준비 시 고려사항

- 1) 선교지의 기후를 고려합니다.
- 2) 자녀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준에 맞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① 자녀는 고3 및 12학년(2000년 이후 출생)까지 기재가 되어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②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선물(자녀 수와 연령 확인 필요) : 학용품(크레파스, 연필, 공책, 스티커, 물감, 사인펜 등), 부피가 크지 않고 깨지지 않는 장난감, 옷, 모자, 책(동화, 위인전, 교양만화, 학습지 등).
- 3) 보안지역에는 기독교 관련 음반, 서적, 비디오, 액세서리 등의 품목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보안지역 유의사항

- 1) 보안지역이란?
※공산권, 이슬람권 등 선교사의 선교활동을 금하고 선교사로는 비자가 제한되는 지역(선교사님의 사역과 신분을 보장하기 위함).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보안지역으로 보낼 경우 기독교관련 선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편지 내용에도 기독교 관련 용어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2) 보안지역 안내
① 공산권 - 중국, 베트남
② 이슬람권 - 중동 및 중앙아시아, 북서 아프리카-동유럽 일부,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튀니지 등)
③ 힌두교권 - 인도
④ 불교권 - 미얀마, 라오스
⑤ 각 공동체는 기록된 선교지 주소로 소포 포장을 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보안지역(수신주소가 선교 단체로 되어있음)의 경우에 소포 포장을 하여 배송료와 함께 선교 단체로 발송합니다(단 예수전도단(YWAM)과 경배와찬양은 문의 후 직접 공동체에서 발송합니다).

4. 문의

- 1) 각 공동체 및 캠퍼스 선교사역자
- 2) 2000선교본부 : 최희준 간사 02-3215-3208, abc12@onnuri.org

5. 우체국 요금

※자세한 사항(규격, 요금, 중량 등의 접수 조건/통관/우편물 중 추적(행방조사) 등)은 우정 사업본부 홈페이지 : <http://www.koreapost.go.kr>나 우체국 대표 전화 : 1588-1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6. 선교단체 연락처

단체	주소	문의
두란노해외선교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3층	02-794-1063
비전빌리지 훈련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 62 2층	031-331-8100
경배와 찬양	문의 후 공동체 직접 발송	02-796-9700
바울 선교회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조경단로 61 2층	063-254-8418
불어권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36길 34, 201호	02-409-2287
빌리온 선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 58길 20 2층	02-879-1191
알타이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2길 22, B01호	02-576-8503
중국복음선교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8	02-778-3626
중동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06 (가락동 한일빌딩 선교제일교회) 4층 401호	02-402-2062
BEE KOREA	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 2길 18	02-822-9480
Cornerstone (모퉁이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 우체국 사서함 8호	02-796-8846
FMn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2(방배동 오선빌딩) 3층	02-848-6251
GBT 선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안양판교로 20 신한대뷰 오피스텔 406호	031-421-5324
G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46-25	02-2653-4270
GMP 개척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14길 25	02-337-7191
GMTC 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18길 78	02-2649-3197 070-4066-0114
GO 선교회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549 2층(금학동 세종빌딩)	041-852-1040
GP 선교회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8길 17	02-443-0883
HOPE 선교회	서울특별시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070-4006-5300
InterCP(인터콥)선교회	서울특별시 용산우체국 사서함 120호	070-8787-8800
InterServe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코오롱트리폴리스 A동 1206호	070-4352-6510
OM 선교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느티로 73(정자동) 현대빌딩	031-698-2372
OMF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 29길 21 호연빌딩 2층	02-455-0261
UPMA 선교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 76 한국세계선교협의회 4층 UPMA	02-815-4052
WEC 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남11길 7-17 송진빌딩 4층	02-529-4552
YWAM(예수전도단)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7나길 14 (문의가능, 물품 공동체 직접 발송)	02-322-0563
더멋진세상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4길 9 501호 (충무로2가, 라이온스빌딩)	02-2271-2246
터키어권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09 (서초구 코리아비즈니스센터 1308호)	070-7578-2380
SEED선교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19길 68 202호	02-521-0791
안산M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온누리M센터	031-491-9650

부탁드립니다

“어린 영혼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낮선 땅에 사는 낯선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부모들의 손을 잡고 영문도 모른 채 먼 길을 떠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나라가 바뀌어서 서너 가지 언어를 배워야 했기에 어느 말이 내 나라 말인지 헷갈리게 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주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있기에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오늘도 열방 가운데 힘차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교사님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매년 어린이날 선교사 자녀에게 선물 보내기에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정의 달을 맞아 타국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 두 손을 모아 주시고, 작은 선물로 어린 영혼들을 격려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관심 어린 손길을 통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따뜻한 돌보심을 경험하고 좋은 추억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손정훈 목사(2000선교)

선교지에서 온 편지

“잊지 않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부는 2006년 결혼하고 선교지로 파송 되었습니다. 현지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10년 넘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3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 대한 추억보다 선교지에서의 추억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기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을 잊을만하면 손으로 쓴 생일편지와 선물이 도착합니다.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매년 잊지 않고 편지와 선물을 보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0년 넘게 선교지에서 지내다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잊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매년 어린이날 편지와 선물을 받으면 염려는 사라지고 아직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도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감격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품고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 오갈렐, 김세리, 하임, 노암, 길(중동G국)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년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3: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 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산(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CMN Bee팀 봉사자 모집

일시: 매월 2째 주일 9시~18시

대상: 내, 외국인 무료진료

분야: 의사, 약사, 치위생사

문의: 한경식 팀장(010-9083-4196)

CMN 마하나임 국내 아웃리치

일시: 4월 22일 일요일 오후 2시~6시

장소: 남양주 온누리교회

사역: 의료사역, 미용사역, 수기치료

문의: 010-8898-3719

김포 M센터 차세대 예배 교사 모집

시간: 주일 11시 예배

장소: 김포 M센터 꿈땅방

문의: 010-2997-4347

일대일 Wake-up 수강신청안내

일시: 매 주일 오전 8시 10분~10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

신청: iSchool

문의: 최지완 간사(02-3215-3220)

강동 온누리교회 젊은 부부학교 5기

일시: 5월 26일~6월 16일 매주 토

오후 1시~9시

장소: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홀

신청 및 문의: 010-2022-8181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KNOCK

CGNTV

“이곳에는 엄마 없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친부모만큼은 못해도
흉내라도 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K N O C K 미니휴먼다큐

리틀 함안스트

소외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경남 함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아이들의 친구가 된 김일연 목사와 동서비전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4월 15일 바로 오늘! KNOCK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만나보세요.
매주 주일 오전 11시 10분 TV에서도 미니휴먼다큐 시리즈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cgntv.knock

CGNTV 정기후원 [KEB하나은행 573-910002-67804] 문의 02-796-2243

